

원폭으로 가족을 잃고

오쿠무라 아야코 (奥村 アヤ子 당시 8세)

당시 여덟 살. 시로야마 초등학교 3학년생. 원폭중심지에서 800미터 떨어진 시로야마마치에서 피폭.

부모, 형제 사망. 혼자 살아남음. 현재 피폭자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 여덟 살 때, 원폭중심지에서 800미터 떨어진 시로야마에서 피폭했습니다. 그날 가족 여덟 명을 잃었습니다. 기차역도 항구도 떨어져 있고 변화가에서도 멀고, 근처에 큰 공장도 없는, 녹음으로 둘러싸여 있던 시로야마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피난하러 왔다가 사망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시로야마는, 시로야마 초등학교 근처에 시영주택이 있었고 그 서쪽에는 논이며 산이 펼쳐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은 열두세 세대로, 할아버지를 부르면 할아버지의 대답소리가 들릴 정도로, 한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족같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8월 9일 11시 2분, 원폭이 투하되어 마을도, 집도, 사람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원폭은 마쓰야마의 상공 500미터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강렬한 섬광과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폭발음, 거기에 따른 열선과 폭풍으로 우라카미 일대는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되고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8월 9일 아침, 아버지와 오빠는 일하러 나갔습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어 나는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같이 방공호로 피난했지만, 얼마 안 있어 해제되어서 어머니와 남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져 높은 곳에 있던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우리는 큰 감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원폭중심지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지만, 저는 폭발음도 듣지 못했고 원자구름도 보지 못했습니다. 번쩍하는 엄청난 섬광에, 저는 순간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놀고 있던 친구들은 폭풍에 날려갔는지 근처에는 없었습니다.

친구의 집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긴 돌계단을 내려서 집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놀러 갈 때는 집도 있고 밭도 있었는데 집은 한 채도 없었습니다.

숙모네 집도 없어졌고 모리야마씨의 말은 죽어 있었고, 사람도 죽어 있어서 나는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새로 지었던 우리 집은 몽땅 무너져버려 형태도 알아볼 수 없었고, 집으로 돌아와 있어야 할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방공호가 생각나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네 살 난 남동생과 만났습니다. 남동생은 화상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불러온다고 하고 남동생을 남겨두고 어머니를 찾아서 온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도중에 옆집 아주머니가 여동생이 감글나무 밑에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급히 가보니 여동생은 얼굴이 통통 부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습이 변해 있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여동생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농사일을 도와주러 자주 갔었기에 밭이랑 논이랑 엄마가 갈 만한 곳은 다 가 보았지만,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8월 9일 밤은 남동생과 동네 사람들과 방공호에서 지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며 재회를 기뻐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새로 짓기 전까지는 백모의 부지 내의 좁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모는 왼쪽이 떨어졌을 때, 시로야마초등학교 가까이에 있는 논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중증이라도 돌아와서 백모 가족은 여섯 명 모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중증이라도 좋으니 만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후 저의 기억은 끊겼습니다. 왼쪽의 충격인지 남동생과 둘만 남고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인지 저는 기억상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백모와 사촌들과 지냈다고 하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사촌에게 당시의 일을 들었습니다. 중증이었던 백모가 돌아가실 때 제가 백모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죽지 말라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모는 돌아가시고 저와 남동생은 그때까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먼 친척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를 떠나는 것이 아주 싫었는지 시골로 갈 때부터 저의 기억은 돌아온 것입니다.

우라카미에 놓인 큰 다리를 건너 불안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로야마 초등학교 근처의 시영주택은 전멸하였습니다. 도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낚시를 하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했던 우라카미강은 왼쪽으로 몸이 탄 사람들이 물을 찾아 모여와 시체가 수없이 가득했습니다.

친척에게 맡겨져 왼쪽의 기억을 잃고 있던 나는, 시로야마에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시골에서 세 시간씩이나 가족을 찾아, 터벅터벅

걸어서 몇 번이고 시로야마에 왔었지만, 그때마다 시골로 끌려 왔습니다.

멀지 않아 시로야마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남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은 대단히 심한 화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을 제가 병원에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어려서 업어 줄 수가 없어, 손을 잡고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업어주고 어머니가 있으면 달래주고, 어머니가 있었으면 마음껏 응석을 부릴 수 있었을 텐데 남동생은 온몸의 아픔을 참으면서 병원에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폭으로부터 두 달 후인 10월 23일, 지옥과 같은 피로움만 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할 목숨이라면, 즉사하는 편이 낫았을 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꼭 참고 있던 남동생 모습이 눈앞에 생생해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밖에서 놀다가 피폭했기 때문에 대량의 방사선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잇몸에서는 피가 나고 몸이 나른하고 아팠지만, 병원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원폭증」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몸이 고통스러워도 의논할 상대도 없고, 부모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말로는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원폭은 내 인생을 변하게 했습니다.

46년간, 저는 원폭에 대해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원폭으로부터 피하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일을 조금이라도 써서 남겨두고 싶어서, 나가사키피해협회가 피해 체험집 『내일への 유산』을 기획했을 때 한 페이지정도 쓰기도 하고, 언니의 친구와 만나서 그때까지 몰랐던 우리 가족의 일들, 특히 언니의 일을 듣고 새롭게 원폭의 참혹함을 알아가는 중에서, 지금은 원폭과 맞서는 기분으로, 당시의 일, 내 생각들을,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산 중턱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무너진 집에 깔려서 두 살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즉사는 아니었겠지만 구해 줄 사람도 없이 숨진 것이죠.

오빠의 소식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도, 오빠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달 제사가 돌아오면 시골에서 시로야마의 묘지로 혼자 걸어오곤 합니다. 어쩌면 오빠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묘지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간판에 「도쿠나가」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오빠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내 마음의 지주였습니다.

피폭으로부터 46년째, 미쓰비시 무기제작소의 위령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미쓰비시 무기제작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위령제에 참가하여 사망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이름은 있었지만, 오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빠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사망한 데다가 입었던 옷도 타버려 알몸과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기에 유골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각자가 죽음을 맞이한 곳의 흙을 조금씩 챙겨와서 새 속옷을 곁들여, 시로야마의 도쿠나가 묘지에 넣어 두었습니다. 46년 만에 가족이 모여서 이 묘지에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5년